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의 계층별 특성: 전라북도 시군명과 면명을 중심으로

조성욱*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of the Setting Method in Administrative District Names: Focusing on Jeonbuk Region

Sung Wook Cho*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그 이후의 군단위와 면단위 행정구역명의 설정 방법을 살펴보고, 군단위와 면단위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의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단위 행정구역명은 새로운 지명 보다는 기존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군단위에 비해서 면단위 행정구역명은 기존의 지명을 사용하는 비중이 낮고,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지명을 만들어 부여하고 있다. 1914년 면단위 행정구역명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면명과 행정구역명의 활용(면명통합, 과거행정지명), 새로운 지명 도입(마을명, 자연조건 유래 지명, 인문조건 유래 지명, 신조어)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면명 설정 방법은 군별 차이가 많았다. 셋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에 군명과 면명은 대부분 지역에 기반하지만, 새로 개발된 시내의 통정동명은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새로운 지명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 계층이 다른 군명과 면명은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주요어 : 행정구역명, 군단위명, 면단위명, 설정방법, 계층별 특성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gional name of county (Gun unit) and sub-county (Myon unit) for searching the pattern of setting method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focus on Jeonbuk reg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names of Gun unit tend to be used as same as existing names without any change. Secondary, Myon unit names were more changable than Gun unit names. The setting type of Myon name in 1914's use apply the existing name without transform (22.9%), integration Myon name of existing name (23.4%), reuse the administrative name of past (21.3%), and adoption new regional name from village name (11.2%), natural environmental based (16.0%), human environmental based (4.3%) and a new name without any regional relation (1.1%). Thirdly, the new city region of Japanese residence has the high ratio of the new name without original local based (68.2%).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setting method of regional name in accordance with administrative hierarchical level.

Key Words :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County (Gun unit) region, Sub-county (Myon unit) region, Setting method,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I. 서론

해당 지역의 자연 및 인문 조건에 기반하는 마을명과

인위적인 성격이 강한 행정구역명은 지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하지만, 특히 행정구역명은 마을명에 비해서 지속성이 짧고, 시대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jbnu.ac.kr)

그러나 행정구역명은 마을명보다 더 큰 지역 규모에서 의사소통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더 큰 지역 규모에서 지역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즉, 마을명이 해당 지역 특유의 자연 및 인문 환경에 의해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한데 비해서, 행정구역명은 인위적이지만 지명으로서 마을명과 같이 지역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지역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조성욱, 2006:59). 따라서 의사소통의 도구와 지역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명의 발생 원리 및 변화 과정 그리고 계층별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군명과 면명은 1914년에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과 이 때 설정한 행정구역명에 기반하고 있다. 물론 이 후 도시화 등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세분되고 다양화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의 12부, 317군, 4,322면이 통폐합되어 12부, 220군, 2,521면으로 축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행정구역명의 변화를 가져왔다(손정목, 1996:264). 1914년도에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구역명의 설정은 현재 행정구역명의 기본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 행정구역명의 설정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명의 형성방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을 전라북도로 한정하여, 현재 행정구역명의 기본틀이 형성된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그 이후의 군단위와 면단위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전라북도는 1부(군산부), 14군, 188면, 22개의 통정동(군산부)으로 개편되었다. 여기에서는 부·군을 군단위, 면·통·정·동을 면단위로 분류하여 각각의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을 분석하고 계층별 차이점을 비교한다.

지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명의 변화에 관련된 연구로는 이정은(1992), 임석회(1995), 조경희(1999), 심규영(2004), 김연지(2006), 윤지현(2006), 홍금수(2007), 오지환(2008)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중 이정은(1992)과 임석회(1995)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그에 따른 변화를 고찰하였고, 홍금수(2007)는 논산군의 형성과정 고찰을 통하여 근대 지역구조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이 토착민이 아닌 일본인

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심규영(2004)은 「朝鮮十三道圖」(1914)와 「新舊對照朝鮮全圖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을 중심으로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과 그에 따른 지역 변화를 도단위로 지도화 하였다. 조경희(1999)는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1759년부터 1914년까지의 행정구역 변천을 고찰하고 있으며, 김연지(2006) 역시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1914년 면단위의 통폐합 유형을 통합면, 편입면, 통합을 실시하지 않은 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윤지현(2006)은 도시 지역인 경성부를 대상으로 일제강점기(1910-1945) 한국 지명의 개편 유형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경성부에서 이루어진 지명(정·통·정목)의 조어 방법을 합성지명, 의미와 관련하여 바뀐 지명, 표기와 관련하여 바뀐 지명, 여러 지명 중 하나를 대표로 세운 지명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오지환(2008)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그에 따른 면명의 구성 방법을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에 지역을 한정하여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에 이루어진 군단위와 면단위의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과 그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고,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에서 군단위와 면단위의 계층별 차이를 고찰해 본다.

II. 군 단위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의 특징

1413년(태종 13년) 이래 유지되어 온 8도제의 지방 행정구역은 1895년(고종 32년) 칙령 제98호에 의해서 23부제로 바뀌었고, 1896년 칙령 36호에 의해서 한성부와 13도제로 변화하였다(임석회, 1995:68).

이 후 1906년¹⁾과 1913년의 부분적인 변화를 거쳐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에서는 1896년에 이루어진 13도제를 기반으로 군과 면단위 지역의 통폐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1896년의 한성부와 7부 1목 331군으로 이루어진 총 340개의 행정구역은 1914년에 12부 220군으로 총 232개의 행정구역으로 변화했다(표 1).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서는 1부 121군이 폐합되고, 1부 24군이 신설되었다(심규영, 2004:20).

전국적으로 68%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30% 이상 축소된 지역은 평남,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으로 서부와 남부 지

표 1.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변화

13도	1896년*	1914년(부)	축소율**
* 한성부	5署	2부 20군(경성부, 인천부)	55%
1. 경기도	4부 34군		
2. 충청북도	17군	10군	59%
3. 충청남도	37군	14군	38%
4. 전라북도	26군	1부 14군(군산부)	58%
5. 전라남도	1목 32군	1부 22군(목포부)	70%
6. 경상북도	41군	1부 23군(대구부)	59%
7. 경상남도	1부 29군	2부 19군(부산부, 마산부)	70%
8. 황해도	23군	17군	74%
9. 평안북도	21군	1부 19군(신의주부)	95%
10. 평안남도	23군	2부 14군(평양부, 진남포부)	70%
11. 강원도	26군	21군	81%
12. 함경북도	1부 9군	1부 11군(청진부)	120%
13. 함경남도	1부 13군	1부 16군(원산부)	121%
합 계	7부 1목 331군	12부 220군	68%

자료: 내무부, 1979; 越智唯七, 1917.

* 1896년 : 개성부, 강화부, 광주부, 인천부, 동래부, 경흥부, 덕원부, 제주목

** 축소율 : (1914년 부군단위 행정구역 수 / 1896년 부군단위 행정구역 수) × 100

표 2. 1914년 군단위 행정구역 축소율에 따른 분류

축소 정도	도
40% 이상 축소 지역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30이상 ~ 40% 미만	평안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30% 미만 축소 지역	평안북도, 황해도, 강원도
증가 지역	함경북도, 함경남도

방이다. 특히 군단위 행정구역이 가장 많이 축소된 곳은 충청남도로 37개 군에서 14개 군으로 축소되어 축소율이 38%에 달한다(표 2).

축소 비율이 비교적 적었던 지역은 황해도, 평북, 강원도 지역인데, 평안북도는 21개 군에서 20개 군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함경북도는 10개 군에서 12개 군으로, 함경남도는 14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오히려 3개 군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군단위 행정구역수의 축소율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곳은 주로 북부의 산지지역이었다.

전라도는 1895년 23부제에서 전주부, 남원부, 나주부, 제주부의 4개 지역으로 나뉘었다가, 1896년 13도제가 도입되면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나뉘었다. 이 중 전라

표 3. 1896년 전라북도 군단위 지역의 등급 구분

등급(수)	해당 군
1등급(2)	전주(부), 남원
2등급(3)	고부, 김제, 태인
3등급(11)	여산, 금산, 익산, 임피, 금구, 함열, 부안, 무주, 순창, 임실, 진안
4등급(10)	진산, 만경, 용안, 고산, 옥구, 정읍, 용담, 운봉, 장수, 구례

북도는 26군(1부 25군)으로 구성되었고, 군은 5등급으로 분류하였다(전라북도, 1989:803)(표 3).

이 후 1897년에 구례군이 전라남도로 이전하고, 현재의 고창군 지역인 무장군과 고창군, 흥덕군이 전북으로 이전하여(유재영, 1993:16), 전북은 26군에서 28개 군이 되었으며, 이 후 1910년 10월의 지방관제 공포에서는 1부 27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서 전라북도는 1부 27개 군이 1부 14군으로 통폐합되어 축소율은 58%에 달했다(그림 1). 특히 전주부가 전주군으로 격하되고, 군산부가 옥구군 북면을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등장했다. 14개 군 중에서 5개 군(부안, 순창, 임실, 장수, 무주)에서



그림 1. 1914년 전라북도 군단위 행정구역(1부 14군)

표 4. 1914년 전라북도 지역의 군단위 변화

1914년 군	1914년 이전 군(1896년의 등급)	면단위 수
* 군산부	옥구군(북면)	(22)
1. 전주군	전주부(1), 고산군(4)	20
2. 익산군	익산군(3), 여산군(3), 용안군(4), 함열군(3)	18
3. 옥구군	옥구군(4), 임피군(3)	10
4. 김제군	김제군(2), 만경군(4), 금구군(3)	17
5. 정읍군	정읍군(4), 태인군(2), 고부군(2)	19
6. 고창군	고창군(4), 흥덕군(3), 무장군(2)	17
7. 부안군	부안군(3)	10
8. 남원군	남원군(1), 운봉군(4)	19
9. 순창군	순창군(3)	12
10. 임실군	임실군(3)	12
11. 장수군	장수군(4)	7
12. 진안군	진안군(3), 용담군(4)	11
13. 무주군	무주군(3)	6
14. 금산군	금산군(3), 진산군(4)	10
합 계	28개 군	188개 면

는 변화가 없었으나, 나머지 9개 군에서는 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 2개 군 통합(전주군, 옥구군, 남원군, 진안군, 금산군), 3개 군 통합(김제군, 정읍군, 고창군) 그리고 4개 군 통합(익산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4). 이러한 과정에서 14개의 군단위 행정구역명(고산, 임피, 운봉, 용담, 진산, 만경, 금구, 태인, 고부, 흥덕, 무장, 여산, 용안, 함열)이 사라졌다.

통폐합이 이루어진 9개 군에서는 1896년에 설정된 군

단위의 5등급 분류 기준과 같이 고차 중심지로 통합된 곳은 5곳(전주군, 김제군, 남원군, 진안군, 금산군)이다. 그리고 4개 군이 통합된 익산군은 같은 3등급인 익산군, 여산군, 함열군 중에서 익산군을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1912년 이리역 개통(호남선 및 군산선)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옥구군, 정읍군, 고창군은 하위 등급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옥구군은 3등급인 임피군이 아닌 4등급의 옥구군으로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정읍군도 2등급인 태인군이나 고부군이 아닌 4등급인 정읍군을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고창군 역시 2등급인 무장군이나 3등급인 흥덕군이 아닌 4등급인 고창군을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1896년 이후 약 20년 사이에 해당지역의 중심지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일본인의 집중 거주 지역 또는 철도역 등 교통 조건의 변화를 고려한 의도적인 중심지 교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옥구군은 군산부와의 거리가 작용했고, 고창군은 3개 통합군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지리적 측면이 크게 작용했고, 정읍군은 1912년 12월 1일 호남선의 정읍역의 개통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철도의 개통이 지역 중심지의 변화를 가져온 사례는 정읍군과 익산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정읍군 신태인역을 중심으로 신태인읍(1939년)이 급성장했으며, 함열면은 과거 함열현의 중심지였던 함라면 함열리에서 함열역이 설치된 와리 지역(현재의 함열읍)으로 중심지가 이동하였다.

이러한 중심지의 변화는 행정지명에 그대로 반영되어 통폐합된 군단위의 지명은 군단위에서는 사라지고 하급 단위인 면명으로 존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14년 전라북도에 설정된 14개 군단위 행정구역명은 모두 기존의 군단위 지명을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군산부도 과거 이곳의 지명인 '군산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군단위의 행정구역명(1부 14군)은 '군산'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지명의 설정이나 변화 없이 다만 중심지의 선택에 의해 기존 군명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행정구역명이 의미하는 지역만 확대되었을 뿐이다.

이 후 1935년 행정구역 개편에서는 전주군이 전주부와 원주군(전주의 옛이름인 완산 + 전주)으로 분리되었다(16개 부군). 1963년에는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이전되고, 1995년에는 군산시와 옥구군의 도농 통합으로, 옥구군이라는 군단위 행정구역명이 사라졌다(표 5).

표 5. 전라북도 군단위 행정구역의 변화

조선시대	1914년	2010년
전주부, 고산현	전주군	전주시 완주군
김제군, 만경현, 금구현	김제군	김제시
익산군, 여산현, 함열현, 용안현	익산군	익산시
옥구현, 임피군	군산부, 옥구군	군산시
남원군, 운봉현	남원군	남원시
정읍현, 태인현, 고부군	정읍군	정읍시
임실현	임실군	임실군
순창군	순창군	순창군
고창현, 흥덕현, 무장현	고창군	고창군
부안현	부안군	부안군
장수현	장수군	장수군
진안현, 용담현	진안군	진안군
무주현	무주군	무주군
금산현, 진산현	금산군	금산군(충남)
28개	15개	14개

표 6. 1914년 전라북도 면단위 행정구역의 변화

부·군	면 수(1914년 이전)	면 수(1914년)	축소율
* 군산부	옥구군 북면	(22)	-
1. 전주군	32	20	62.5%
2. 익산군	42	18	42.9%
3. 옥구군	23	10	43.5%
4. 김제군	38	17	44.7%
5. 정읍군	40	19	47.5%
6. 고창군	34	17	50.0%
7. 부안군	19	10	52.6%
8. 남원군	39	19	48.7%
9. 순창군	19	12	63.2%
10. 임실군	25	12	48.0%
11. 장수군	13	7	53.8%
12. 진안군	26	11	42.3%
13. 무주군	14	6	42.9%
14. 금산군	18	10	55.6%
합계	364개	188개	49.2%

표 7. 군산부의 22개 행정 단위

구분	통정동명(通町洞名)
통(3개)	本町通, 全州通(전주통), 明治町通
정(13개)	西濱町, 濱町, 浪花町, 幸町, 錦町, 大和町, 旭町, 淺山町, 曙町, 横田町, 江戸町, 芦町, 榮町
동(6개)	신흥동, 송창동, 개복동, 구복동, 대정동, 장재동

III. 면 단위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의 특징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전국적으로는 4,322개면이 2,521개면으로 축소되었고(58.3%), 전라북도에서는 382개면이 188개로 축소되어(49.2%), 전국 평균보다 축소율이 높았다.

여기에서는 1914년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면단위 행정구역 188개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군산부 내의 22개 통정동을 별도로 분석한다. 면단위 지역의 축소율은 익산군, 옥구군, 김제군, 정읍군, 진안군, 무주군과 같이 지역 보다는 군단위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표 6).

먼저 군산부는 1910년 옥구군 북면의 죽성리 지역을 중심으로 통(通) 3개, 정(町) 13개 등 16개의 행정구역을 새롭게 만들었고, 1914년에는 주변의 9개 동과 리를 통합하여 6개의 동(洞)을 설정하였다(유재영, 1993:78)(표 7). 이 후 1932년 옥구군 미면(신흥, 둔율, 경장 일부)과 개정면(구암 일부)의 일부를 편입하였다. 그런데, 이 때 만들어진 통과 정은 전주통(全州通)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식으로 지어진 행정구역명이다. 즉, 군산부의 22개 통정동 중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신조어가 15개(68.2%)이고, 기존 지명에서 유래한 지명이 7개(31.8%)이다. 이와같이 기존의 지명에 기반하지 않은 새로운 지명은 이

표 8. 1937년 전주부의 행정구역명

구분	정명(町名)
지역 유래 지명	팔달정, 풍남정, 고사정, 서신정, 노송정, 완산정, 화산정, 중산정, 인후정, 덕진정, 검암정
외래 지명	大正町 1-7, 花園町, 大和町, 本町 1-4, 清水町, 相生町, 曙町, 昭和町,

후 전주에서도 나타나는데(1937년), 주로 일본인이 거주하는 도시의 시가지 지역이다(표 8).

1914년에 만들어진 188개 면 명을 지명 유래에 따라 분류해 보면, 첫째, 기존 행정구역명을 활용하였다. 즉, 원래의 면명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통폐합되는 면명을 조합하여 새로운 면명을 만들어내는 방법, 과거 해당 지역에 존재하던 상위 행정구역명(군현명)을 하위 수준인 면명으로 도입하는 방법 등이다. 둘째, 새로운 면명을 도입하였다. 즉, 해당 지역의 마을명을 면명으로 도입하

표 9. 1914년 전라북도 면명 설정 방법별 분류

지역별 분류별	면 수 (통정동)	기존 행정구역명 설정 유형			새로운 행정구역명 설정 유형			
		원면명	면명 통합	과거 행정지명	마을명	자연 조건	인문 조건	일제 신조어
(군산부)	(22)	-	-	(1)	(6)	-	-	(15)
1. 전주군	20	11	3	2	1	1	2	-
2. 익산군	18	2	-	7	5	3	1	-
3. 옥구군	10	1	-	4	2	1	-	2
4. 김제군	17	3	3	3	2	3	3	-
5. 정읍군	19	1	8	3	1	5	1	-
6. 고창군	17	2	9	3	3	-	-	-
7. 부안군	10	4	1	2	-	3	-	-
8. 남원군	19	5	10	2	2	-	-	-
9. 순창군	12	5	6	1	-	-	-	-
10. 임실군	12	5	1	2	2	2	-	-
11. 장수군	7	-	2	1	-	4	-	-
12. 진안군	11	-	1	4	1	5	-	-
13. 무주군	6	1	-	3	-	2	-	-
14. 금산군	10	3	-	3	2	1	1	-
합 계	188	43 (22.9%)	44 (23.4%)	40 (21.3%)	21 (11.2%)	30 (16.0%)	8 (4.3%)	2 (1.1%)
		127(67.6%)			61(32.4%)			

는 방법, 산명이나 하천명과 같은 자연조건에 기반한 지명, 정자나 역과 같은 인문조건에 기반한 지명, 일제에 의한 신조어로 분류할 수 있다(표 9).

면명 설정 방법을 군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 면명을 그대로 사용한 비중은 전주군(55%)이 가장 높으며, 과거 행정 지명을 도입한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익산군(38.9%)이고, 기존 면명의 통합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정읍군(42.1%)과 고창군(52.9%), 남원군(52.6%), 순창군(50.0%)이다. 또한 진안군(45.5%)과 장수군(57.1%)은 자연 조건에 기반한 새로운 지명의 도입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1914년 이전에 존속했던 면명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188개 면명 중 43개(22.9%)이고, 나머지 145개(77.1%)는 면명에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장수군과 진안군은 원래 면명을 그대로 설정하는 경우가 전혀 없이 모든 면명이 변화했다.

새로운 면명은 기존의 면명을 통합하여 새로운 면명을 만들어낸 경우가 44개(23.4%), 과거 군현명 등을 면명으로 활용한 경우가 40개(21.3%)로 기존의 행정구역명에 기반한 면명은 84개(44.7%)이다. 특히 남원군, 고

창군, 정읍군, 순창군에서는 면명 통합에 의한 면명 설정 방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하여, 익산군, 옥구군, 무주군, 금산군에서는 면명 통합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군단위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표 10).

기존 면명의 조합 방법은 다음 7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 ① 첫째 음절 + 첫째 음절 : 용동면(용지면+동촌면)
- ② 첫째 음절 + 둘째 음절 : 초포면(초곡면+회포면)
- ③ 둘째 음절 + 둘째 음절 : 덕천면(우덕면+달천면)
- ④ 둘째 음절 + 첫째 음절 : 아산면(대아면+산내면)
- ⑤ 간략화 : 산외면(산외일변면+산외이변면), 변암면(상변암면+중변암면+하변암면)
- ⑥ 중복 반영 : 쌍치면(상치등면+하치등면), 이백면(백암면+백파면).
- ⑦ 기타 : 운선면(운동상면+장선리[마을명]), 하리면(하서면+남면[과명])

과거 행정지명의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조선 시대의 부군현(30개, 75.0%)의 행정구역명이 도입되었

표 10. 기존 면명의 통합에 의한 면명 설정

군명(44개)	새로운 면명(통합면명)
1. 전주군(3)	초포면(초곡면+회포면), 봉동면(봉상면+우동면), 운선면(운동상면+장선리)
2. 익산군	해당 면명 없음.
3. 옥구군	해당 면명 없음.
4. 김제군(3)	월촌면(월산면+대촌면), 백산면(백석면+연산면), 하리면(하서면+남면*)
5. 정읍군(8)	용동면(용지면+동촌면), 감곡면(감산면+사곡면), 용북면(용산면+북촌면), 소성면(소정면+성포면), 덕천면(우덕면+달천면), 우순면(우일면+장순면), 산외면(산외일면+산외이면)
6. 고창군(9)	고수면(고사면+수곡면), 오산면(오동면+산내면), 아산면(대아면+산내면), 석곡면(백석면+탁곡면), 공음면(외공면+동음치면), 상하면(상리면+하리면), 해리면(청해면+오리동면), 성송면(성동면+원송면), 대산면(대사면+장자산면)
7. 부안군(1)	산내면(좌산내면+우산내면)
8. 남원군(10)	주천면(주촌면+원천면), 흑송면(흑성면+송내면), 주생면(주포면+남생면), 대산면(대곡면+정산면), 사매면(사동면+매내면), 덕과면(덕고면+적과면), 보절면(보현면+고절면), 왕치면(왕지전면+갈치면), 금지면(금안면+기지면), 이백면(백암면+백파면)
9. 순창군(6)	인계면(인화면+호계면), 동계면(아동면+영계면), 풍산면(풍남면+오산면), 팔덕면(팔등면+덕진면), 금과면(금동면+목과면), 쌍치면(상치등면+하치등면)
10. 임실군(1)	둔남면(둔덕면+남면)
11. 장수군(2)	변암면(상변암면+중변암면+하변암면), 산서면(2+수서면)
12. 진안군(1)	상전면(상도면+탄전면)
13. 무주군	해당 면명 없음.
14. 금산군	해당 면명 없음.

출처 : 유재영, 1993:288

* 리(離)는 남(南)의 괘명(卦名)

표 11. 과거 행정지명 관련 면명

군명(40개)	과거 행정 단위(해당 면명)
1. 전주군(2)	전주면(전주부), 고산면(고산현)
2. 익산군(7)	익산면(익산군), 용안면(용안현), 함라면(함열현의 별칭), 함열면(함열현), 여산면(여산현), 낭산면(낭산현-고려), 금마면(금마군-고려)
3. 옥구군(4)	구읍면(옥구현), 옥산면(옥구현의 별칭), 회현면(회미현), 임피면(임피현)
4. 김제군(3)	김계면(김제군), 만경면(만경현), 금구면(금구현)
5. 정읍군(3)	정읍면(정읍현), 고부면(고부현), 태인면(태인현)
6. 고창군(3)	고창면(고창현), 무장면(무장현), 흥덕면(흥덕현)
7. 부안군(2)	부령면(부령현-고려), 보안면(보안현-고려)
8. 남원군(2)	남원면(남원부), 운봉면(운봉현)
9. 순창군(1)	순창면(순창현)
10. 임실군(2)	임실면(임실현), 청웅면(청웅현)
11. 장수군(1)	장수면(장수현)
12. 진안군(4)	진안면(진안현), 마령면(마령현-고려), 용담면(용담현), 동향면(동향소)
13. 무주군(3)	무주면(무주현), 무풍면(무풍현), 안성면(안성소)
14. 금산군(3)	금산면(금산현), 진산면(진산현), 부리면(부리현-고려)

지만, 군현의 별칭을 사용한 경우가 2곳(함라면, 옥산면), 그 이전인 고려시대의 행정구역명을 사용한 지역이 6곳(낭산면, 금마면, 부령면, 보안면, 마령면, 부리면), 그리고 향소부곡명을 사용한 곳이 2곳(안성면, 동향면)이 있다(표 11).

그리고 1914년 이전에는 행정구역명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마을명이나 마을명의 조합에 의해 면명을 설정한 경우는 21개(11.2%), 산이나 하천명 등 자연조건에서 유래한 면명을 도입한 경우는 30개(16.0%), 정자나 역 이름 등 인문조건에서 유래한 면명을 도입한 경우는 8개(4.3%)로 지역에 기반하면서도 새롭게 행정구역명으로 탄생한 지명은 59개(31.4%)이다.

마을명에서 유래한 경우는 도입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세분할 수 있다(표 12).

- ① 마을명이 그대로 도입된 경우 : 나포면(나포리)
- ② 마을명을 조합한 경우 : 화산면(화평리+운산리)
- ③ 마을명의 변형 : 아영면(아곡리), 삼계면(뇌천+후천+유천)

해당 지역의 자연 조건에서 유래한 면명은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산이름을 면명으로 채택한 경우가 19개, 평야명을 채택한 경우 1개, 그리고 하천명 또는 하천을 기준으로 한 지명을 채택한 경우가 10개이다(표 13). 인문

표 12. 마을명에서 유래한 면명

군명(21개)	면명(마을명)
1. 전주군(1)	화산면(화평리+운산리)
2. 익산군(5)	오산면(오산리), 왕궁면(왕궁리), 웅포면(웅포), 성당면(성당포구), 망성면(망성)
3. 옥구군(2)	개정면(개정리), 나포면(나포)
4. 김제군(2)	쌍감면(쌍감리), 죽산면(죽산리)
5. 정읍군(1)	보림면(보림리)
6. 고창군(3)	성내면(칠성리+내일리), 신림면(신평리+입리), 벽사면(벽송리+사천리)
7. 부안군	해당 면명 없음.
8. 남원군(2)	대강면(송대리+강석리), 아영면(아곡리)
9. 순창군	해당 면명 없음.
10. 임실군(2)	운암면(운암리), 삼계면(뇌천+후천+유천)
11. 장수군	해당 면명 없음.
12. 진안군(1)	백운면(백암+운교)
13. 무주군	해당 면명 없음.
14. 금산군(2)	복수면(다복리+수영리), 추부면(추정리+자부리)

조건에서 유래한 지명 중 정자와 관련된 지명이 3개(삼기정, 황화정, 백구정), 역명이 면명이 된 경우 3개(삼례역, 제월역, 영원역), 그리고 저수지명이 면명이 된 경우가 2개(공덕지, 용지)가 있다(표 14). 자연 조건에서 유래한 면명은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비하여, 인문 조건에서 유래한 면명은 서부 평야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면명은 옥구군의 2개⁴⁾(서수면, 대야면) 뿐이다. 이것은 군산부 내 22개 통정동 지명 중 68.2%(15개)가 일제에 의한 신조어라는 점과 많은 차이가 있다.

표 13. 자연조건에서 유래한 면명

분류	군명	자연 조건(해당 면명)
평야(1)	정읍군	배 들(이평면)
	전주군	비봉산(비봉면)
산(19)	익산군	황등산(황등면), 팔봉산(팔봉면), 삼기산(삼기면)
	옥구군	오성산(성산면)
	김제군	청하산(청하면), 성덕산(성덕면), 진봉산(진봉면)
	정읍군	칠보산(칠보면), 내장산(내장면), 입암산(입암면), 정토산(정토면)
	부안군	행안산(행안면), 주 산(주산면)
	임실군	성수산(성수면)
	진안군	성수산(성수면), 부귀산(부귀면)
	무주군	적상산(적상면)
	금산군	금성산(금성면)
	하천(10)	부안군
임실군		오원천(오원면) ⁵⁾
장수군		장계천(계북면, 계남면, 계내면), 천 천(천천면)
진안군		주 천(주천면), 정 천(정천면), 안 천(안천면)
무주군		설 천(설천면)

표 14. 인문조건에서 유래한 면명

분류	군명	인문 조건	해당 면명
정자(3)	전주군	삼기정	삼기면
	익산군	황화정	황화면
	김제군	백구정	백구면
역(3)	전주군	삼례역	삼례면
	정읍군	영원역	영원면
	금산군	제월역	제월면
저수지(2)	김제군	공덕지	공덕면
		용지	용지면

IV.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의 계층별 특성과 차이점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이루어진 전라북도 행정구역명 중 군단위명(1부 14군)은 ‘군산부’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군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일제에 의해 새로운 도시로 개발된 ‘군산부’만이 기존에 이 지역에 존재하던 ‘군산진’을 행정구역명으로 격상하여 사용했다. 즉,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군단위명에서는 기존의 군명을 무시하지 못하고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8개 군단위가 15개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14개(50.0%)의 군단위 지명이 사라졌다는 점은 이 시기 군단위 행정구역명 변화의 파급효과는 신설보다는 폐지와 함께 이루어진 지역의 중심지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에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군단위 지명들이 사라짐으로서, 새로운 지역 체계의 형성을 가져왔다. 즉,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영향은 새로운 지명보다는 통폐합에 따른 지명의 폐지에 따른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896년에 설정된 군의 5등급 분류 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등급이 높은 고차 중심지로 통합이 된 곳이 5군(전주군, 김제군, 남원군, 진안군, 금산군), 같은 등급 중에서 한 곳으로 통합된 군이 1곳(익산군), 지역 내 높은 등급의 중심지가 낮은 등급의 중심지로 통합된 군이 3곳(옥구군, 정읍군, 고창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옥구군(4등급)은 임피군(3등급)보다 낮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중심지로 선택되었는데 이것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신도시인 군산과의 거리 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군산 지역은 과거 옥구군 북면 지역에 해당된다. 정읍군(4등급)은 고부군(2등급)과 태인군(2등급)의 등급

이 월등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읍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정읍에 호남선이 통과하는 점(1912년)과 동학혁명운동의 중심지인 고부군과 오랫동안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던 태인군(구한말 최익현)을 배제했다는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창군(4등급)은 흥덕군(3등급)과 무장군(2등급)을 통폐합하고 있는데, 흥덕군과 무장군이 모두 동학혁명운동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은 기존 지명을 그대로 활용하여 군단위명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폐합 과정을 통하여 지명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것이다.

1914년 이후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군에서 완주군이 분리되고(1935년), 금산군이 충남으로 이전하였으며(1963년), 군산시와 옥구군이 도농 통합(1995년)되어 군산시로 되고, 이리시와 익산군(1995년)이 익산시로 통합되어 현재는 14개 시군으로 시군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전라북도는 1981년 읍의 시 승격으로 인하여 6시 13군에 이르렀으나, 이 중 같은 행정구역명을 쓴 곳이 2곳(남원, 김제)으로 지명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표 15). 그리고 군산시의 도농통합에 의해서 옥구군이 사라지고, ‘이리’라는 지명은 1947년 등장했다가 1995년 도농통합으로 익산시가 됨으로서 사라지게 되었다. 1914년과 비교하면 당시 군단위 15개의 행정구역명이 1개 신설(완주군), 1개 이전(금산군), 1개 통합(옥구군)으로 현재는 14개 군단위 행정구역명이 유지되고 있다. 1914년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군단위 행정구역명은 완주군과 이리시 그리고 정주시(정읍)인데, 이 중 완주군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이리시(1947-1995)와 정주시(1981-1995)는 사라졌다. 1914년 이후 새롭게 만들어졌던 군단위 행정구역명 3개의 구성원리를 살펴보면, 완주군(완산+전주, 기존지명 조합), 이리시(송리, 마을명), 정주시(정읍, 변형)의 3개 유형이다.

표 15. 전라북도 시군명의 시기별 변화

시기	1914년 (1부 14군)	1981년 (6시 13군)	2010년 (14시군)
시(부)군명	군산부 전주군, 익산군, 옥구군, 김제군, 부안군, 정읍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남원군, 순창군, 고창군, 금산군	전주시, 이리시, 군산시, 정주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옥구군, 익산군, 정읍군 남원군, 김제군,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완주군, 고창군
계	15	19	14

군단위 행정구역명은 한 번 채택이 되면 지속성이 유지되고 변형이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데 비해서 면단위 지명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많다. 1914년에 채택된 전라북도 188개 면단위 지명 중 원래 기존의 면명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약 22.9%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면명이 약 77.1%에 달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면명 중에는 기존의 면명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경우(23.4%), 과거 군현단위의 행정구역명을 차용한 경우(21.3%)와 함께, 그동안 행정구역명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마을명(11.2%), 자연조건과 인문 조건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지명(20.3%), 그리고 일제에 의한 신조어(1.1%)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일제에 의한 신조어는 다른 면명이 지역에 기반하는 데 비해서 지역에 전혀 기반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군산부의 통정동명과 같이 일본인에 의해 새롭게 조성된 도시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라북도 시군단위 행정구역의 읍면동수는 총 228개인데, 1914년의 210개(188개 면 + 22개 통정동)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면명에서는 1914년 이후 10개면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16개의 면명이 사라지고, 5개의 면명이 새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

게 신설된 면은 6개이다. 이 중 위도면은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전남에서 편입된 것이고, 광활면과 계화면은 간척 사업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지역이다. 그리고 경천면, 변산면, 진서면은 기존 면의 분할에 의해 만들어졌다(표 16). 면이 통합된 10개 지역 중 원래 면명을 대표 지명으로 정한 경우가 5개 지역(고산면, 고수면, 아산면, 신림면, 북면)이고, 면명 통합에 의한 경우가 3개 지역(정우면, 송동면, 구립면), 그리고 봉남면은 금구현의 다른 이름인 봉성(鳳城)의 남쪽이라는 의미로 '봉남'이라는 새로운 지명을 도입했다(유재영, 1993:288). 신생면의 경우 경천면은 마을명(경천리)에서 유래하였고, 광활면은 넓은 평야(자연조건)라는 의미에서 도입된 지명이며, 위도면과 계화면은 섬의 이름(인문조건)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부안군 산내면이 분리되어 이 지역의 지역명인 변산면(변산)과 검모진(부안군, 1991:1004)의 서쪽이라는 의미로 진서면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면의 명칭이 변화한 8개 지역을 살펴보면, 황산면은 이 지역에 위치하는 황산에서 유래하였고, 금산면은 금산사에서 유래했으며, 신태인읍은 태인의 새로운 지역이라는 의미이고, 부안읍(1943년)은 읍 승격과

표 16. 1914년 이후 면단위의 변화

시군	면 통합	새로 만들어진 면	면명 변화
완주군	삼기면+ 고산면 ⇒ 고산면 운선면+운동하면 ⇒ 운주면	경천면 신설 (1957, 운주면에서 분리)	-
김제시	하리면+초치면 ⇒ 봉남면	광활면 신설 (1949, 진봉면에서 분리)	쌍감면 ⇒ 황산면(1935) 수류면 ⇒ 금산면(1935)
고창군	오산면+ 고수면 ⇒ 고수면 석곡면+ 아산면 ⇒ 아산면 벽사면+ 신림면 ⇒ 신림면	-	-
정읍시	보림면+ 북면 ⇒ 북면 정토면+우순면 ⇒ 정우면	-	용북면 ⇒ 신태인면(1933)
남원시	흑송면+ 두동면 ⇒ 송동면	-	동면 ⇒ 인월면(1998)
부안군	산내면(진서면과 변산면으로 분리)	위도면 편입(1963) 계화면 신설(1983) 진서면 분리(1983) 변산면 분리(1983)	부녕면 ⇒ 부안읍(1943) 건선면 ⇒ 줄포면(1930)
임실군	-	-	둔남면 ⇒ 오수면(1992)
순창군	구암면+무림면 ⇒ 구립면	-	-
장수군	-	-	계내면 ⇒ 장계면(1993)
합계	10개	6개	8개

자료: 한글학회, 1981; 유재영, 1993

함께 군명을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인월면(인월장), 줄포면(줄포), 오수면(오수장), 장계면(장계장)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면명과 지역 인식이 불일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지명으로 교체한 것이다. 즉, 마을명이 면명으로 승격된 경우이다.

결국 1914년 이후 전라북도에 새롭게 도입된 행정구역명은 군단위에서 3개(완주군, 정주시, 이리시)에 불과하지만, 면단위에서는 19개가 새롭게 등장하여 군단위에 비해서 변화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행정구역명의 구성 방법도 군명이 조합형(완주), 원래 지명 변형(정주), 마을명 도입(이리)의 형태인데 비하여, 면명은 기존 면명의 조합(4개), 과거 행정지명 활용(3개), 마을명 유래(1개), 인문조건 유래(8개), 자연조건 유래(3개)로 군명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V. 결론

행정구역명은 마을명에 비해서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군 및 면단위 행정구역명의 대부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이후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군단위와 면단위 행정구역명의 설정 방법과 이후에 이루어진 행정구역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군단위와 면단위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의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단위 행정구역명은 새로운 지명 보다는 기존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에 전라북도 지역의 28개 군단위가 15개 단위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14개 군명이 사라지고, 14개의 군명이 아무런 변화없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채택되었다(93.3%). 다만, '군산부'만이 '군산진'이라는 지명이 군단위 지명으로 승격되어 새롭게 등장하였다. 1914년 이후에는 '금산군'이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충남으로 편입되고, '옥구군'이 군산시에 도농통합 되면서 2개의 군단위명이 사라졌다. 그리고 1935년 '완주군'이 전주에서 분리하여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군명이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1914년 이후에 '이리시(49년간)'와 '정주시(15년간)'라는

군단위 지명이 존재하다가 사라졌다.

둘째, 군단위에 비해서 면단위 행정구역명은 기존의 지명을 사용하는 비중이 낮고,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지명을 만들어 부여하고 있다. 1914년에 채택된 188개의 면단위 지명 중 기존의 면명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는 22.9%이고, 나머지 77.1%는 새롭게 만들어진 지명이다. 1914년 면단위 행정구역명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면명과 행정구역명의 활용(면명통합, 과거행정지명), 새로운 지명 도입(마을명, 자연조건 유래 지명, 인문조건 유래 지명, 신조어)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면명과 기존면명을 활용한 면명통합이 46.3%를 차지하고, 나머지 53.7%는 새로운 면명을 도입하였다.

원면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하나도 없는 장수군과 진안군, 그리고 면명 통합 방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익산군과 옥구군, 무주군과 금산군과 같이 면명 제정 방법에서는 군별 차이가 많다. 특히 과거 행정구역명의 사용 비중이 높은 익산군과 옥구군의 경우는 과거 행정단위의 통합이 많이 진행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명 중 인문조건에 기반한 경우는 주로 서부 평야 지역의 비중이 높고, 자연조건에 기반한 경우는 전 지역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1914년 이후에는 10개의 면명이 통폐합되어 사라지고, 14개 면명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새로 도입된 14개 면명 중 6개는 편입되거나 신설된 면명이고, 나머지 8개는 기존 면명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명으로 대체한 경우이다.

셋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에 군명과 면명은 대부분 지역에 기반하지만, 시가지의 통정동명은 일제에 의해 새로운 지명을 부여하였다. 지역의 기반이 없는 새로운 지명은 군단위에서는 전혀 없고, 면명에서도 극히 적게 나타나지만(1.1%), 시내의 통정동 단위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68.2%). 그러나 이렇게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통정동명은 1945년 이후 대부분 사라졌다.

이상과 같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은 일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행정구역명의 변화가 있었지만, 군단위와 면단위에서는 대부분 기존 지명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미했으나, 시내의 통정동 단위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행정 지명은 군단위 보다는 면단위에서의 변화가 더 심하게 나타나서, 고차보다는 저차 지명에서 변화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군단위에서는 군명의 신설보다는 통폐합에 의한 중심지 변화가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에만 한정하여 분

석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註

- 1) 1906년 평양부와 제주목이 폐지되고, 광주부와 강화부 그리고 개성부를 군으로 개칭함. 그리고 인천, 옥구, 무안, 창원, 동래, 덕원, 성진, 삼화, 경흥, 의주, 용천은 부로 개칭함.
- 2) 1963년 익산군 황화면이 충남 논산군으로 이전하고, 전남 영광군의 위도면이 전북 부안군으로 이전함.
- 3) 1935년 관촌면으로 개칭함.
- 4) 서수면(瑞穗面)은 1905년 일본인 가와사키(川崎藤太郎)가 만든 가와사키 농장(川崎農場)이 있었던 지역으로, 그의 영향력에 의해 면명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서수는 고사기(古史記)에 나오는 '싱싱한 벼이삭'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이다(군산문화원, 1996:64). 대야면(大野面)은 임피군의 남산면 지역인데, 남쪽의 만경강의 곡류를 막아 넓은 들(大野)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로 일본인들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가히 농장(甲斐農場), 이노우에 농장(井上農場), 시마다니 농장(鳩谷農場), 구마모토 농장(熊本農場) 등의 일본인 농장이 많았다(군산문화원, 1996:67).

참고문헌

군산문화원, 1996, 「군산시 고유지명에 관한 연구」.
 김연지, 2006, “1914년 경상남도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사례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순배·류제현, 2008,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대한지리학회지, 43(4), 599-619.
 내무부, 1979, 「지방행정구역발전사, 내무부 지방행정국 지방기획과.
 부안군, 1991, 「부안군지」.
 서동일, 1995,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심규영, 2004, “일제 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복원과 그 지도화: <조선십삼도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염인호, 1983, “일제하 지방통치에 관한 연구-‘조선면제’의 형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지환, 2008,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면명 구성 방법과 유형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재영, 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민음사.
 윤지현, 2006, “일제의 한국지명 개편의 유형에 관한 연구 -경성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혜동, 2004, “일제의 면제실시와 촌락재편 정책,”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은, 1992, “일제의 지방통치체제 수립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233-273.
 임석희, 1995, “공간조직의 관점에서 본 한국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라북도, 1989, 「전라북도지 제1권」, 전라북도.
 조경희, 1999, “경상남도 행정구역 변천의 역사지리적 연구: 1759-1914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욱, 2006, “도시주변 면단위 행정구역의 지역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59-71.
 조성욱, 2007, “사회적 영향에 의한 지명 변화의 원인과 과정 -전북 진안군 지명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5), 526-54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8,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한글학회, 1981,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홍금수, 2007, “근대형 지역구조로의 이행과 지역패권의 선정을 위한 도시담론의 동원” 문화역사지리, 19(1), 91-124.
 越智唯七(編纂), 1917, 「新舊對照朝鮮全圖府郡面里洞名稱一覽」.

교신 : 조성욱,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chossww@jbnu.ac.kr)

Correspondence : Sung Wook Cho, 561-75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 Jeolla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w@jbnu.ac.kr)

투 고 일: 2012년 6월 1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1일
 투고확정일: 2012년 6월 12일